

〈과학이 바뀌놓은 영화의 세계〉

‘영화의 미래는 디지털에 달려있다’

글_오애리 문화일보 기자 aeri@munhwa.co.kr

지난 2001년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독일의 영화감독 빔 벤더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영화의 미래는 디지털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이전 영화학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디지털 캠코더로 자기 영화를 찍지 않는가. 100년이 넘는 영화사에서 이런일은 처음이다.”

‘파리 텍사스’로 유명한 세계적인 감독 빔 벤더스의 디지털 예찬은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디지털 영화라면 오래 인터넷을 떠도는 아마추어 감독들의 단편영화쯤으로 생각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이다. 벤더스가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을 비롯해, 이란의 거장 감독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역시 ‘칸다하르’를 디지털 영화로 선보이는 등 이미 디지털 영화는 영화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임상수 감독이 10대 가출 청소년들의 이야기 ‘눈물’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고, 송일곤 감독의 ‘꽃삼’, 김응수 감독의 미공개 영화 ‘육망’ 등도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영화들이다.

‘절묘한 표현력’ 무한한 가능성 제시

디지털 영화가 이처럼 영화감독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디지털 기술은 영화 미학을 어떻게 바뀌놓았으며, 영화 소비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영화관객들이 디지털 기술의 위력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은 아마도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포레스트 검프’ 때부터가 아닐까 싶다. 물론 그전에도 디지털 기술, 즉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한 영화들이 많았지만, ‘포레스트 검프’를 통해 그 절묘한 표현력에 무릎을 치게 된 것이다. 특히 검프가 이미 사망한 케네디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악수를 나누고, 미국과 중국간의 첫 탁구



임상수 감독의 '눈물'



송일곤 감독의 '꽃섬'

경기 등 1960~70년대 세계사의 중요한 이벤트에 얼굴을 내미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디지털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감하도록 해주었다. 이처럼 영화계에서는 현재처럼 완전 디지털 영화가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이미 많은 부분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왔다.

그렇다면 요즘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영화란 무엇인가. 간단히 정리하자면, 디지털 영화는 필름이란 기존의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화된 저장 방식을 사용해서, 즉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한 영화를 가리킨다.

영화감독들이 디지털 영화를 선택하는 이유는 대략 두 가지다. 첫째는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표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특수 효과가 많아서 필름보다는 디지털 저장방식을 사용해야 후반 작업이 편리하다는 점이다.

첫째 요인은 영화의 표현형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좋은 성능의 디지털 카메라와 배우만 있으면 누구나 영화 감독이 될 수 있게 되었다. 혼자 디지털 카메라로 영화를 찍어 편집용 컴퓨터로 편집한 후에 녹음까지 완성하면 인터넷 영화로 개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감각으로 무장한 젊은 감독들은 전혀 새로운 표현형식으로 젊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대

표적인 경우가 지난 99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미국의 인디 영화 '블레이워치 프로젝트'다. 적은 예산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네 명의 영화학도들이 블레이워치 숲 속으로 들어가 마녀 전설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 일종의 가짜 다큐멘터리인데,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가상의 영화제작 과정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는 신선한 발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신세대들이 눈을 붙잡은 다음 극장 개봉에서 엄청난 반향을 모음으로써 누구나 반짝하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디지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젊은 감독들의 창작열 복돋워

디지털 카메라는 감독들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속으로 한층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기도 하다. 키아로스타미가 탈레반 체제하에 놓여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삶 속으로 파고 들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 카메라의 간편함과 기동성 덕분이었다.

둘째 요인은 제작비 면에서 첫째 요인과 상반되는 면이 있다. 즉 디지털 영화는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지만, 또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화려한 특수 효과로 중무장한 대작 오락영화들이 그런 예가 된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장면에만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기도 한다.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최신 시리즈가 이에 해당된다. 우리 영화 '아 유 레디'도 특수 효과를 위해 일부 장면들은 루카스가 스타워즈 촬영 때 사용했던 특수 디지털 카메라를 임대해 쓰기도 했다.

디지털 영화는 영화 소비문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디지털 영상 기술이다. 기존 필름 영화는 마스터 테이프의 복사본을 세계 곳곳의



빔 벤더스 감독의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미국의 저예산 디지털 영화 '블레이워치 프로젝트'

극장에 보내는 방식으로 상영된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런 번거로움 겪을 필요가 없다. 몇 해 전 조지 루카스 감독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을 개봉하면서, 미국내 몇몇 극장에 복사본을 보내는 대신 컴퓨터로 전송한 영화 파일을 디지털 영사기를 통해 상영하는 방식을 실험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가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디지털 영화를 디지털 영사기로 상영할 때 가장 완벽한 영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디지털 영사기가 보편화되지 못해 많은 디지털 영화가 필름으로 다시 옮겨져 기존 영사방식으로 상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상업 영화관에서는 아직 디지털 영사방식이 시도된 적이 없지만, 부산국제영화제, 전주영화제, 레스페스트 영화제 등을 통해 일부 시도된 적이 있다.

보는 영화 장르 바꿀 DVD에 기대

디지털 영화에서 다소 벗어난 이야기지만, 최근 한 외신은 1회용 DVD가 곧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겉보기에는 일반 DVD와 차이점이 없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DVD에 담긴 정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대여점에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소장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도 매우 싸게 책정될 예정

이라고 한다. 이런 새로운 개념의 DVD는 영화를 보는 문화를 엄청나게 바꿔 놓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차역의 자판기에서 최신 DVD 타이틀을 사서 여행을 하는 동안 노트북 컴퓨터로 영화를 본 다음 가볍게 버리는 게 보편화될 듯하다.

영화 역사는 곧 기술의 역사다. 약 100년 전 영화 카메라의 발명으로 움직이는 그림 시대가 열린 이래, 소리를 담아내는 기술로 이른바 유성영화시대가 열렸고, 이제 영화의 기존 개념을 바꾸는 디지털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디지털 기술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디지털 영화를 만든 많은 감독들은 "디지털 영화라고 해서 대충 싼값에 찍을 수 있다거나, 또는 대충 준비했다가는 실패하기 쉽다"고 털어놓고 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의 영화라 할지라도 사전준비 및 촬영과정은 기존의 필름영화제작과정과 다름없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하더라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67



글쓴이는 세계일보, 시사월간지 「세계와 나」를 거쳐 문화일보에 입사, 국제부에서 재직중이다.